

01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

_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

■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주요 논저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2003)

『미군정 자료 연구』(2003)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2004, 공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2007, 공저) 등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전기의 종류
- 3 편찬의 주제
- 4 이미지의 변주

전기는 해당 전기가 생산된 시점의 해당 인물에 관한 담론구조를 간직하고 드러낸다. 전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사상과 활동, 그것이 펼쳐진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전기의 생산된 시점에서 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담론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방식, 또 그것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1950년대에 간행된 이승만 전기의 종류, 편찬 주체와 동기, 그리고 서술과 인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에 나온 이승만 전기의 당시의 억압적인 정치상황이 말해주듯 개인에 의해 자유롭게 편찬된 것이 아니라 주로 정부의 공보처, 또는 어용단체에 의해 편찬되었고, 개인이 집필한 전기도 주로 그 후원자(patron)는 이승만 정권의 홍보, 선전 업무를 담당한 인사들이었다. 이 글은 서정주, 한철영, 박성하, 로버트 T. 올리버(Robert T. Oliver), 우남 전기편찬회가 쓴 전기들을 주로 분석했다. 또 이범석, 박마리아, 이기봉, 로버트 T. 올리버 등 전기 편찬을 주도한 인물들도 분석하였다.

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들은 이승만을 그 정점으로 하는 이승만 정부의 홍보·선전 정책을 담당한 기구와 그 기구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해서 편찬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간행된 전기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로버트 T. 올리버가 쓴 전기의 편찬과정은 이승만과 로버트 T. 올리버가 전기에 이승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투사하고 관리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또 이 시기에 나온 전기들의 서술 내용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면 이범석을 우두머리로 하는 '족청계'가 몰락하고, 이기봉이 부상하는 이승만 정권 내 권력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승만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주제어

이승만, 이승만 전기, 공보처, 선전대책위원회, 서정주, 로버트 T. 올리버(Robert T. Oliver), 이범석, 박마리아, 이기봉

1. 들어가며

이승만은 생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 중 하나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데다 그가 집권한 시기가 현대 한국 사회의 기초가 된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당연하다. '애국에는 충신, 외교에는 귀신, 내정에는 등신'이라는 평가는 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로는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소략하지만 그에 대한 세간의 통념화된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 인식은 동시대인으로서 그를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그의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형화되었지만, 그에 관한 전기류가¹⁾ 만들어내고 유통시킨 것도 없지 않다. 즉 학계와 세간의 이승만 인식에는 그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 가공된 인식과 이미지가 착종한다.

전기는 그것이 생산된 시점의 담론구조를 간직하고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1) 이 글에서 '전기류'는 전기, 평전과 같은 전기적 연구는 물론이고, 회고담, 일화집, 언행록 등 인물 연구를 가능하게 하거나 인물 연구의 형태를 취한 저술 일반을 일컫는다.

사상과 활동, 그것이 펼쳐진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전기가 생산된 시점에서 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담론이 만들어지고 소비된 방식, 또 그것이 가진 정치적 의도와 동기, 해당 전기의 연구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적 차원에서 전기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인물 자체에 대한 연구를 분리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위해서나 인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은 거쳐야 할 작업이다. 한편, 그에 관한 전기류의 텍스트 분석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고, 또 텍스트 분석을 수행할 만한 자료적 토대가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역사가의 '때늦은 지혜'를 통해서 그에 대한 사실과 인식, 기억과 이미지 사이의 관계와 낙차, 그것들의 생산과 유통, 소비 방식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배경과 이유가 있다. 우선 이승만이라는 인물 자체, 또는 그의 행동양식이 그가 활동한 동시대부터 항상 논란을 일으켰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가 1919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 청원이 당시 독립운동계에 가져온 충격과 논란, 그의 노선과 행동이 미주 한인 사회에 몰고 온 분란, 그의 단독정부 수립 방안이 해방 직후 정계에 불러일으킨 파문, 한국전쟁기 휴전협상 막바지에 그의 일방적인 반공 포로 석방으로 휴전협상을 난항에 빠뜨리고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점 등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독립운동기부터 그의 노선과 활동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맹목적 추종자와 완강한 반대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성격 또한 다중적이었다. 그는 모든 정치자금과 개인문서들을 직접 관리하는 치밀함을 가졌지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한편 이승만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는 해당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거나, 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던 시대 또는 그가 연루된 사건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해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또 저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승만에 대한 인물 연구는 흔히 학문적 논쟁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집권기 그와 그의 주변에서 수행한 이상화 작업과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그에 대한 비판, 최근의 이승만 예찬론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승만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성격, 사상과 노선, 행동 양식이 논쟁적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와 그의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치적·이념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일정한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구조가 존재함을 반영한다. 해방 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승만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 지도 모른다.

이 글은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나온 이승만 전기의 종류와 편찬 경위, 편찬의 주체와 동기, 서술과 인식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 전기류에 대한 내용 평가와 비판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특정한 인식과 이미지가 계승되거나 변동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에 대한 텍스트 분석에 이어서 해당 시기의 전기가 가진 담론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이승만 전기 편찬이 가졌던 정치적 의미 내지 효용성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텍스트 분석에 입각하였고, 전기에 대한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을 수행하겠지만 이승만 정권기에 전기가 생산되고 편찬되는 기제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소화되는 방식과 양상도 아울러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전기의 종류

먼저 1950년대에 나온 대표적인 이승만 전기의 목록부터 살펴보자. 아래 목록은 정부 수립 이후 1960년 4월 민중 항쟁 이전에 나온 이승만 전기를 취합한 것이다. 이 목록은 단행본 형태를 취한 이승만 전기, 평전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에 출간된 이승만 전기 목록]

- 梁又正編, 『李承晩大統領 建國路線의 勝利』, 獨立精神普及會, 1948
- 梁又正, 『李大統領鬪爭史』, 聯合新聞社, 1949
- 梁又正, 『李大統領建國政治理念』, 聯合新聞社, 1949
- 徐廷柱, 『李承晩博士傳』, 三八社(1995 『雲南李承晩傳』으로 재출간, 華山), 1949
- 金琬燮, 『李承晩大統領 全世界에 웨친다』, 대한신문사, 1952
- 韓徹永, 『自由世界の 巨星 李承晩大統領』, 文化春秋社, 1953
-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New York, 1954 & 1955(Reprinted with author's corrections)
- 葛弘基, 『大統領李承晩博士略傳』, 公報處, 1955
- 新聞學會 編, 『自由의 領導者: 大統領李承晩博士傳記』, 신문학회, 1955
- 이갑수, 『위인이승만박사전기』, 백과당출판사, 1955
- 로버트 T. 올리버 저 · 박마리아 역, 『리승만박사전: 신비에 싸인 인물』, 1956 합동도서주식회사(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으로 재차 번역 출간)
- 박성하, 『대한민국의 아버지 우남 리승만박사전』, 명세당, 1956
- 金長興, 『민족의 太陽: 雲南李承晩博士評傳』, 警察圖書出版協會, 1956
- 李承晩博士鬪爭史刊行會, 『民族의 巨星: 李承晩博士』, 문성당 (74쪽), 1956
- 公報室編, 『世紀의 偉人: 外國人이 본 李承晩大統領』, 公報室, 1956
- 韓國公報室編, 『李承晩論』,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6
- 大韓獨立血史編纂委員會, 『국부 리승만박사 그림전기』 大韓軍人遺族會,

1957

- 우남전기편찬위원회, 『우남노선: 리승만박사투쟁노선』, 1958
- 공보실, 『우리대통령 리승만박사』 공보실, 1959

위의 목록을 토대로 우선 주요 전기들의 필자와 출간 경위, 편찬 동기를 (먼저) 살펴보자. 한국전쟁 이전에 나온 이승만 전기라 할 만한 것으로는 양우정의 『이대통령 투쟁사』, 서정주의 『이승만 박사전』이 있다. 양우정의 『이대통령 투쟁사』는 이승만의 청년시절부터 대통령 취임까지를 다루었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했다. 양우정은 이 책 이외에 1948년 『이승만 대통령 건국노선의 승리』, 1949년 『이대통령건국정치이념』을 각각 발간하였고, 이승만의 지도 이념인 일민주의를 체계화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양우정은 일제 식민지기에 신간회 참여, 카프 중앙위원 역임, 국내공작위원회사건 및 반제동맹사건에 연루되어 4년 간 복역한 경력이 있는 사회주의자였으나 일제 경찰에 검거된 뒤 1934년에 전향하였고, 이후 목탄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해방 이후 신탁통치반대투쟁위원회 선전부장, 대동신문 논설위원을 거쳐서 정부 수립 이후에는 연합신문 사장, 동양통신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²⁾

서정주의 『이승만 박사전』은 1930년대 중반까지의 개인적인 삶과 독립 운동사를 가계와 배경, 소년, 청년, 해외풍상 네 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사건 서술을 인물들 사이의 대화로 끌고 나가는 등 내용을 극화해서 읽기 쉽게 만들었다. 원래 이 책의 집필을 서정주에게 권한 것은 2대 대통령 윤보선이었다. 해방 직후 민중일보신문사 사장이자 이승만 환국

2) 日本外務省アジア局 監修, 霞關會(編), 『現代朝鮮人名辭典』1962年版, p.2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인터넷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2680&ty=2>.

기념사업회 대표였던 윤보선은 민중일보사 간부인 김광섭, 이현구 등과 상의하여 서정주에게 이승만의 전기 집필을 위촉하였고, 「민중일보」에 그것의 연재를 부탁하였다. 서정주는 윤보선, 김광섭, 이현구와 함께 1947년 7월 이승만을 처음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 이승만으로부터 직접 구수(口授)를 받아 우남(雲南) 전기의 자료를 마련해서 이승만 박사전을 집필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정주는 1947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매주 두 번 아니면 한 번씩은 꼭 이승만의 거처에 들러서 이승만이 어려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것을 큰 대학 노트에 일일이 받아 적었다. 서정주는 이승만의 구술을 토대로 1947년 겨울부터 집필에 들어가 1949년 여름에야 탈고하였고, 그해 늦가을에 이 책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출간 직후 대통령의 직접 명령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이 책을 압수하였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의 대변인 노릇을 한 시인 김광섭에 의하면 이승만이 이 책을 몰수한 이유는 이승만 아버지의 이름 밑에 경칭을 붙이지 않은 데 대해 이승만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정주는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수 교수 부부와 이승만의 미망인 프란체스카의 권유로 1995년에 이 책을 재출간하였다.³⁾

한철영의 『자유세계의 거성 이승만 대통령』(1953)은 한국전쟁 후 최초로 나온 본격적인 전기다. 한철영은 『한국의 인물』, 『제헌 국회사』, 『정치 대연설 선집』 등의 저자였다. 이 책은 한철영이 휴전 무렵인 1953년 7월에 탈고한 후, 검토를 거쳐 12월에 출간하였고, 이기봉의 부인 박마리아가 서문을 썼다. 한철영이 자서(自序)에서 재 교정을 보아준 김광섭

3) 서정주, “이승만 박사가 읊어주던 漢詩의 감동”, 『이승만, 박정희를 추억한다』(조선일보사, 2004), pp.109-117. 이 글에서는 재출간된 서정주, 『우남리승만전』(서울: 화산문화기획, 1995)을 참고하였다.

(金珖燮)과 박마리아, 안희경(安喜慶)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 책은 한철영이 집필하였지만 박마리아의 지원과 김광섭의 교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김광섭은 이 책이 나오기 1년 전인 1952년에 『李承晩 大統領 全世界에 웨친다』는 책을 이미 집필한 바 있다. 안희경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서 1952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⁴⁾

갈홍기의 『大統領 李承晩 博士 略傳』(1955)은 이승만에 대한 찬미가이자 90쪽에 불과한 홍보용 소책자다. 당시 공보처장인 필자가 이승만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출간한 것으로서 이승만 출생 이래의 주요 활동과 업적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엮었다. 공보실에서 편찬한 『世紀의 偉人: 外國人이 본 李承晩 大統領』(1956)은 제목 그대로 외국인들, 주로 미국인들이 미국 언론에 기고한 이승만에 관한 글 총 21편을 모아서 번역한 것이다. 기고자들은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 등 이승만의 미국인 사설고문단이거나 이승만에 호의적인 미국인 기자들이었다. 공보실은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타이완에서 출간하였는데, 『李承晩論』(1956)이 바로 그것이다. 공보실이 1959년 펴낸 『우리 대통령 리승만 박사』는 이승만의 “84회 탄신을 맞이해서 각하의 건강하신 모습과 일상생활 그리고 그간에 이룩하신 업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용 예화집이다. 이 86쪽짜리 소책자에서는 이승만의 사생활과 취미 등 일상생활과, 그의

4) 안희경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13년 2월 7일생,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와 보성전문학교 법과 졸업, 1937년부터 조선총독부 직속재판소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 근무, 해방 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194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47),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1950), 조선전업회사 상임감사(1956), 외자청 과장(1958) 등을 역임.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인물자료 인터넷관, 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8_3007, http://db.history.go.kr/url.jsp?ID=jw_1937_0961_0050 등.

정치 이념, 지난 1년 간 동정 등을 화보와 함께 소개했다.

박성하의 『대한민국의 아버지 우남 리승만 박사전』(1956)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순국문’으로 집필된 일종의 위인전이다. 필자 박성하는 『링컨전』, 『조오지 워싱턴전』 등 위인전을 집필한 경험이 있는 작가였으나, 자세한 인적 사항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전기는 이승만의 일대기를 탄생과 가문,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대통령 시절의 5개 장으로 나누고, 각 장별로 이승만의 성장과 활동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평이한 문체로 에피소드식으로 엮었다. 민의원 의장 이기붕, 내무부 장관 이익홍, 보건사회부 장관 정준모, 국방부 장관 손원일, 문교부 장관 리선근, 민의원 부의장 황성수, 한국은행 총재 김유택, 산업은행 총재 구용서 등 당시 정계와 재계 요인들이 대거 서문을 썼고, 청소년과 군인, 경찰을 상대로 널리 보급하였다.⁵⁾ 『민족의 太陽: 雲南 李承晩 博士 評傳』(1956)의 필자 김장홍은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의 신변 경호를 담당했고, 경무대 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으며, 내무부 치안국장 시절 이 책을 집필하였다.⁶⁾ 또 민의원 의장 이기붕과 내무부 장관 김형근이 서문을 썼다. 경찰도서출판협회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아 경찰을 대상으로 하여 발간되었을 것이다.

대한독립협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국부 리승만 박사 그림전기』

5) 이 책의 증보 3권은 1956년 12월에 발행되었는데, 각 부 장관에 변동이 있고, 또 입법부, 사법부 요인들과 군부 지도자들의 서문이 새로 추가되었다.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 인물은 대법원장 김병로, 재무부장관 인태식,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김용우, 문교부장관 최규남, 교통부장관 이종립, 전매청장 안정근, 강원도지사 김장홍, 민의원 부의장 이재학, 국회내무분과 위원장 한희석, 국회국방분과 위원장 안동준, 민의원 의원 조남수, 연합참모총장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이형근, 해군참모총장 정준모, 공군참모총장 장덕창, 공군중장 김정렬 등이다.

6) 와세다 중학교 교외생 출신인 김장홍은 해방 이전 경찰로 일하였으며, 해방 이후 서울 本町警察署(현 中部警察署) 情報係長으로 일하다가 이승만의 신변 보호를 맡게 되었고, 1949년 경무대 초대 경찰서장으로 취임하였다. 1952년 내무부 치안부국장, 1954년 내무부 치안국장이 되었다. 1956년 강원도지사가 되었다. 『中外新報』 1946. 5. 6; 『동아일보』 1952. 11. 2; 『동아일보』 1954. 3. 29.

(1957)는 이승만의 82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김광섭의 「헌사: 우남 이박사 탄신을 맞이하여」로부터 시작한다. 이 전기는 이승만에 대한 “전기나 설화가 이미 온갖 모양으로 널리 퍼져 있으나 매양 이 나라의 남녀 노유가 손쉽게 찾아 읽으며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보기 좋은 그림과 함께 이 어른의 걸어오신 발자취를 쉬운 글로 간추려 일반 국민에게 보이며 읽히고자” 출간하였다.⁷⁾ 편찬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일반 국민을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삽화를 많이 활용한 85쪽짜리 그림 전기다. 대한독립협사편찬위원회는 이 책을 편찬한 것 외에는 달리 활동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지 이 책의 편찬을 위해서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이병천(李炳天)은 성동구 학무과장과 사회과장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이나, 편찬위원 명단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윤일선,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이병도,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선근,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장 이회승, 시인 이은상, 예술원장 박종화, 전국 문화단체총연합회 최고위원 이현구와 김광섭, 한국일보 논설위원 유광열, 동아일보 주필 고재욱 등 전부 20명이나 되고, 당시 학계, 문학회, 언론계 대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 책의 추천사는 자유당 총무위원장 강성욱이 썼다. 머리말에 “이 책의 발간에 이선근 박사가 꾸준히 지도 편달하여” 주었다고 적힌 것으로 보아 이 책 편찬을 내용적으로 주도한 것은 이선근이었다.⁸⁾

우남전기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우남 노선: 리승만 박사 투쟁노선』(1958)은 민의원 의장 이기붕을 비롯하여 대법원장, 검찰총장, 내무부 장

7) 대한독립협사편찬위원회(1957), p. 2.

8) 이선근은 당시 성균관대학교 총장이었으나, 한국전쟁기에 육군 정훈국장을 하였고, 이후 문교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관 등 행정 각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 대표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부 최고 지도자들은 물론 국민회 중앙총본부, 자유당 중앙당부 선전위원장과 조직위원장 등 정당, 사회단체 대표 등 총 35명이나 헌사를 쓴 요란한 책이다. 이 책은 이승만의 노선을 제정(帝政) 개혁 노선, 항일 독립 노선, 건국 노선, 멸공 통일 노선, 건국 외교 노선으로 분류한 뒤 이러한 분류에 맞추어 그의 활동을 연대순으로 서술하였고, 또 “우남노선과 외국 동지들”, “숭고하고 위대한 경륜”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이 책은 이승만 개인의 전기인 동시에 자료집 역할도 겸하였다. 그의 어록이나 연설 가운데 중요한 것과 중요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설이나 자료도 같이 편집되어 있다. 이 전기는 정부수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다고 되어 있으나 필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뚱맞게도 그의 멸공 통일 노선에 이기붕의 자서전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자유당의 이념과 당면정책이 추가되거나, “숭고하고 위대한 경륜”에 이기붕의 어록이 다수 포함된 사실 등은 이 책이 누구의 주도에 의해 편찬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책의 구성과 수록 내용으로 보아 편찬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그 중에서도 이기붕이었다.

1950년대에 나온 이승만 전기들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연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가 쓴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다. 이 전기는 이승만의 홍보고문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올리버가 쓴 것으로 1954년에 초판이 나왔고, 1955년에 필자 교정에 의한 재판이 나왔다. 또한 이 책은 박마리아의 주도로 번역되어 한국에서 1956년에 출간되었고, 2002년에 한 언론인에 의해 재차 번역 출간되었다. 올리버 박사는 서문에서 “한 인간의 실체는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에게나 나타

나며, 그것도 진정한 우애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쳐 이승만을 사랑하고 존경해 온 사람들만이 그를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그와 이승만의 친밀한 관계와 오랜 교류를 들어 그가 이승만의 실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였다. 그가 증언과 자료 제공을 통해서 집필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힌 사람들은 임병직, 변영태, 신흥우, 임영신, 양유찬, 한표옥, 이원순, 주영한, 프레스턴 굿펠로우(Preston M. Goodfellow), 존 스태거스(John W. Stagers), 제이 제롬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등 대부분 이승만의 한국인, 미국인 사설고문단(Kitchen Cabinet)이었고, 이승만의 미국 체류 시절부터 그를 위해 일하던 측근들이었다. 올리버는 이 전기의 집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이승만 부처를 꼽았고, 12년에 걸친 교우 기간 중 그들과 나눈 사적 대화와 수없이 주고받은 편지들, 이승만이 제공한 개인 문서와 서한, 일기 등이 이 책의 자료원임을 밝혔다.⁹⁾

이 책은 이승만 부처와 사설고문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만들어졌고, 1950년대에 나온 전기들 가운데 다른 어떤 책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자료적 토대 위에서 서술되었다. 특히 이승만 부처는 단순한 협조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올리버는 이 책의 표지 색깔까지 이승만 부부와 의논해서 결정할 정도로 이 책의 집필, 출판 과정에서 부딪히는 세부적 사항을 날날이 이승만 부부와 협의하였다. 또 이승만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초고와 개정 원고, 초판본의 교열과 교정을 보아서 그 개선방향을 지시하는 등 이 책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썼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9) 로버트 T. 올리버 (저)·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pp.11-13.

집필, 출판, 배포, 개정 과정은 이승만 전기, 또는 이승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홍보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이 책은 영어로 나온 최초의 이승만 전기이자 미국 사회에 이승만의 생애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알린 최초의 책이 되었다.

3. 편찬의 주체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에 나온 이승만 전기의 편찬 주체들은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이는 편찬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두 이승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른바 ‘측근’이거나, 이승만의 홍보 정책, 사상 정책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공보처, 공보실 또는 공보처장, 공보실장을 필자 또는 발행인으로 내세운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작가 개인의 이름으로 출간된 전기도 대부분 이승만 또는 그의 측근의 지원으로 편찬되었으며, 그 측근은 대부분 이승만 개인 또는 정부의 홍보 작업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이대통령 투쟁사』를 저술한 양우정의 경우 이승만 정권 초기의 이데올로기로, 일민주주의의 체계화와 보급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서정주의 『이승만 박사전』 역시 이승만의 구술을 받아 집필된 것이며, 그의 전기 집필을 주선하고 주도한 것은 이승만 환국기념사업회 대표 윤보선이었다. 윤보선은 서정주의 집필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던 「민중일보」를 통해서 연재하려 그러할 기도는 성사되지 않았다. 『李承晩 大統領 全世界에 웨친다』의 저자 김광섭은 당대의 시인이자 전국문화단체총연맹(문총) 최고위원으로 문학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었고, 또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변인을 하였다.

『민족의 太陽: 雲南 李承晩 博士 評傳』을 저술했던 김장홍 역시 해방 직후에 이승만의 신변 경호를 담당했던 인물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내무부 치안부국장, 치안국장으로 이승만 정부의 사상통제 정책을 일선에서 이끌었다.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의 올리버 박사의 경우 이승만의 홍보 정책에 관한 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이승만의 사설고문단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한철영과 박성하는 동원된 작가에 불과했고, 그들의 전기 집필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보다 집필을 주선하고 그들을 동원한 박마리아와 이기봉의 존재다. 그 외에 리승만박사투쟁시간행회, 대한독립혈사편찬위원회, 우남전기편찬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전기 편찬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이 단체들은 그 외의 활동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전기 편찬의 명목으로 급조되거나 이름뿐인 단체들이었다. 이들 단체의 이름으로 나온 전기 편찬을 주도한 주체 역시 이승만 정부의 홍보 정책, 사상 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이거나 이기봉 등 당시 권력의 실세들이었다.

이와 같은 편찬 주체들의 면면은 이 시기 전기들이 이승만 홍보와 이상화 작업을 위해서 편찬되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이승만의 생일을 기념하여 전기를 출간하는 것이 연례 사업이 되었고, 각 기구, 단체, 개인들이 경쟁하듯이 전기를 편찬하였다. 이 시기는 그 이전, 이후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이승만 전기 편찬이 활발하였다.

(1) 공보처

이승만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홍보사업을 담당할 곳은 공보처였다. 정부 수립 후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공보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령

의 공포, 정보, 선전, 통계, 인쇄,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실제로 공보처는 고유의 업무인 홍보, 선전, 통계 사업 외에 언론·출판 통제 뿐 아니라, 방송·연구·영화 등 대중문화 분야와 문예계 통제도 담당하였다.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처를 실로 개칭하였고,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었다. 또 공보처 관할업무 중 통계국은 내무부로, 영화검열, 보통간행물 심사는 문교부로 이관하였다. 역대 처장, 실장으로 초대 김동성(1948. 8~1949. 8), 2대 이철원(1949. 8~1950. 8), 3대 김활란(1950. 8~1951. 1), 4대 이철원(1951. 1~1953. 3), 5대 갈홍기(1953. 3~1956. 7), 6대 오재경(1956. 7~1959. 2), 7대 전성천(1959. 2~1960. 4)이 각각 부임하였다.¹⁰⁾

역대 처장, 실장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대 처장 김동성은 1908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 유학하여 신문학을 전공하였으며, 귀국한 뒤 1920년 4월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함으로써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합동통신사를 설립하여 초대사장에 취임하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공보처장으로 부임하였다.¹¹⁾ 이철원(2, 4대 공보처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홍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는 그는 미군정하의 과도 정부에서 공보부장을 지냈다.¹²⁾ 김활란(3대 공보처장)은 이화여전 교장, 이화여대 총장 등을 지낸 교육자이자 여성 지도자였다. 대한

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해방 직후에는 1946년 9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실정을 알리는 등 이승만의 민간 외교 사절로 활약하였다. 또 한국전쟁 중에는 「코리아 타임즈(The Korea Times)」라는 영자신문을 발행하여 홍보와 외교 활동을 하였고, 그 밖에도 국민 홍보 외교 동맹을 조직하여 참전국과의 민간 외교 활동을 담당하였다.¹³⁾ 갈홍기(5대 공보처장)는 1928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 1931년 개렛신학교(Garrett Theological Seminary)를 마친 뒤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을 거쳐 1934년 시카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해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1943년 11월 종교보국회 추최로 함경남·북도 도청소재지에서 기독교계 대표로 학병 지원의 유세를 행한 적이 있다. 1948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1951년 한일회담 대표, 이듬해 외무부 차관으로 외교관 생활에 임하였다. 1953년 공보처장, 1955년 공보실장으로 부임하였다.¹⁴⁾

오재경(6대 공보실장)은 1956년 부임 당시 37세의 젊은 관료였다. 일본 리교(立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해방 이후 미군정청 후생부 시설국장, 감찰위 비서관을 지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사업지도자 훈련 계획에 의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사회부 유엔연락관, 내무부 총무과장, 사회부 후생과장, 국무총리실 비서관, 문교부 유엔 한국재건위원회(UNKRA) 연락관 등을 역임하였다.¹⁵⁾ 전성천(7대

10) 건국십년지간행회, 『대한민국건국십년지』(서울, 1956), p.477; 홍승면·안철구 외, 『해방20년(자료편)』(서울: 세문사, 1965) p.257.

11) 건국십년지간행회(1956), p.970.

12) 건국십년지간행회(1956), p.1129.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인터넷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view.jsp?id=PPL_7KOR_A1899_2_0003107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인터넷 『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view.jsp?id=PPL_7KOR_A1906_1_0000023

15) 건국십년지간행회(1956), p.1043.

공보실장은 일본 도쿄 청산학원(靑山學院) 출신으로 해방 전 조선신학원 교수로 있었고, 해방 후 1947년 재미한국유학생회 회장, 1948년 미국 뉴욕한인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1955년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1956년 자유당 중앙당부 문화부장, 사단법인 대한방송협회 회장, 1957년 자유당 중앙당부 선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 아세아반공연맹 사무총장이 되었다.¹⁶⁾ 초대 김동성부터 5대 갈홍기까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이승만과 인연이 있고 미국 유학 경력의 소유자인 데 비해 6대 오재경은 전문 관료 출신이고, 7대 전성천은 자유당에서 선전 분야를 담당했던 경력이 눈에 띈다. 공보처장, 공보실장은 이승만이 신뢰하는 인물이 맡았는데,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전문 관료 또는 자유당에 기반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된 것이 이채롭다. 이러한 변화는 이승만 정권의 권력 구조의 변화,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이기붕을 축으로 해서 자유당이 권력 실세로 부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보처, 공보실은 자체적으로 이승만 전기를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그것을 보급,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기관이 국민들과 해외 여론을 대상으로 만든 이승만 전기류는 이승만의 노선, 활동, 업적을 노골적으로 미화하거나 찬양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의 성격을 가졌고, 내용도 소략하였다. 즉 공보처, 공보실이 편찬한 전기류는 대부분 이 시기에 가용한 이승만 전기 또는 전기 편찬을 위한 자료들로부터 그 내용을 선별해서 간추린 소책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편찬된 이승만 전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식 선전 기관이 발행한 홍보용 소책자

16)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9_30141

이외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전기 편찬의 기제와 전기 편찬을 주도한 인물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편찬을 주도한 인물들을 시계열적으로 놓고 보면 일정한 역사적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나온 양우정의 『이대통령 투쟁사』는 정권 초기에 이승만의 지도이념으로 제창된 일민주의를 해설하고 보급하는 일련의 책들과 같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발행에 이승만이 직접 관여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양우정의 일련의 저서들 편찬을 주도한 것은 양우정, 이범석 등 이른바 일민주의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던 ‘족청계’ 인사들이었다.¹⁷⁾ 그럼에도 양우정의 책들은 정부 수립 초기에 이승만의 지도 노선을 내외에 천명하고, 그것을 국민들 사이에 널리 선전할 목적으로 출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승만이 편찬에 관심을 보이고 직접 간여한 최초의 전기는 서정주의 『이승만박사전』이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출간 직후 이른바 ‘불경죄’로 압수되어 배포되지 못하였다.

(2) 주요 인물, 기구

박마리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최초로 나온 한철영의 『자유 세계의 거성 이승만 대통령』의 편찬을 주도한 것은 박마리아였다. 이후 박마리아는 올리버 박사의 책을 번역해서 1956년에 『리승만 박사전: 신비에 싸인 인물』이라는 제목

17) 『이대통령 투쟁사』는 정부 관계자들의 서문이 하나도 없는 것에 비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승만 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와 『이대통령 건국 정치 이념』에는 모두 당시 국무총리 이범석의 서문이 있다. 후지이 다케시, “이승만”이라는 표상: 이승만 이미지를 통해 본 1950년대 지배권력의 상징정치, 역사문제연구소 정기 심포지엄, 『1950년대 ‘대한민국’을 살다』(역사문제연구소, 2007), pp. 5-10.

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박마리아는 한철영의 책 서문에서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전기 하나 없고 그 사상적 체계를 천명한 저서 한 권 없다는 것은 아직도 이 방면에 대한 노력을 시기상조라고 해야 할 것인진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전쟁 이전에 나온 양우정의 저술이 이승만의 이념과 노선을 일민주의로 체계화한 점을 고려한다면 박마리아의 이러한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박마리아는 또한 한철영의 전기가 “전기적 부분과 아울러 독립 투쟁의 노선과 그 과정을 평이한 서술로 밝혔다”고 소개하였으며, 이 책이 이승만의 투쟁을 연구하려는 초기적인 노력으로서 “사실의 수집과 년대에 대한 면밀한 문헌적 기록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필자인 한철영도 이승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엮기 위해서 공표된 가지가지의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탈고 후에도 재삼 자료를 검토했음을 밝혔다.¹⁸⁾ 이 책은 서술 내용에 대해서 그 시기에 나온 다른 모든 이승만 전기들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료 수집이나 검토에 꽤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마리아는 올리버 박사가 저술한 전기의 번역서 서문에서 “이 책과 같이 독창적이며 또한 새로운 사실에 기초를 둔 장편의 본격적인 전기는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그 의의를 요약한 뒤, 저자는 “십여 년 전부터 이승만 박사와 교분이 있고, 이승만 박사가 환국하였을 때 보좌관으로 지낸 일도 있어서 이박사의 공적이며 사적인 면을 살살이 볼 수 있던 분이 라 이 내용은 가장 권위 있는 전기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이 전기를 높이 평가하였다. 박마리아는 이 책을 번역할 때 안건호와 한철영의 도움을 받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한철영은 박마리아의 지원으로

1953년에 이승만 전기를 집필한 경력이 있다. 박마리아는 또 서문에서 번역을 착수하자 이승만이 올리버 박사의 원본 중 “다소 사실과 어긋나는 점에 교정하여야 할 부분을 각 장마다 직접 지적하여 주어서 그 교정된 부분을 주로 참작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혔다. 즉, 올리버의 전기는 이승만이 주시한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이승만은 그 번역본에 자신의 의중을 직접 반영한 셈이다. 이는 텍스트 분석의 측면에서 올리버의 원본과 박마리아의 번역본을 서로 다른 판본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¹⁹⁾

박마리아는 1950년대에 나온 이승만 전기들 가운데 가장 권위있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편에 속하는 두 권의 책의 번역과 집필을 주도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마리아는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의 2인자로 부상한 이기붕의 부인으로서 해방 후 남편이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진출하는 데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남 이강석(李康石)을 대통령의 양자로 삼게 하는 등 부부가 함께 권력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바,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 할 수 있다.²⁰⁾

19) 박마리아의 번역본이 초판을 번역한 데 비해 2002년에 나온 황정일의 번역본은 재판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이 두 권 역시 여러 군데 차이가 있다. 박마리아의 번역은 초판 번역이지만 또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 몇 부분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원본과 두 개의 서로 다른 번역본을 모두 별개의 판본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20) 박마리아는 교육가·사회운동가로 1935년 이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간사 겸 총무로 일하면서, YWCA의 친일화에 앞장섰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기에는 관제부인운동을 이끌었다. 1906년 강릉 출신으로 1923년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好壽敎女子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였고, 1928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이화여전 졸업 후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고, 이화여자전문학교 시절부터 공창(公娼)의 폐지와 금주·금연 등의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사추세츠주 마운트홀리옥대학, 테네시주 스카렛대학과 피바디사범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932년 귀국하여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쳤다. 1935년 이기붕(李起鵬)과 혼인함과 동시에 이때부터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총무로 10년간 활동하였다. 해방 후 대한걸스카우트연맹과 대한부인회 등을 지도하였고, 1954년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과장을 거쳐 문리대학 학장 및 부총장에 취임하였으며,

18) 韓徹永, 『自由世界の巨星 李承晩 大統領』(서울: 文化春秋社, 1953), pp. 21-23.

선전대책위원회

박마리아가 전후 이승만 전기 편찬을 주도한 것은 이승만과의 사적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전대책중앙위원회와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직후 공보처에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계몽선전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서 이승만 정부의 이념을 선전하였다. 이범석이 정부 수립 초기에 이승만의 지도 이념인 일민주의를 체계화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것과 양우정의 책들에 서문을 썼던 것은 양자의 이념적 친화성도 있겠지만 이범석이 선전대책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마리아가 이승만 전기 편찬에 적극 나섰던 것 역시 그녀가 이 위원회 위원인 점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보처는 1950년 9월 1일 선전대책중앙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여 부산에서 전시선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박마리아 역시 그 위원회에 여야를 망라한 정치지도자들, 이승만 정권의 최고위 관료들, 언론계와 문화계 지도자들과 나란히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전시선전대책위원회는 '전시 선전의 강력한 전개와 그 추진을 위하여 각층 각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68명으로 구성된' 공보처 산하 기구였다. 그 위원장은 김도연(金度演), 부위원장은 김동성(金東成)이었다. 김도연은 야당인 민주당 지도자였고, 김동성은 초대 공보처장을 지낸 바 있다. 위원으로는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사회부 장관, 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0년 4·19가 일어나 자유당정권이 붕괴되자 경무대(景武臺)로 피신, 5월 28일 가족 모두가 권총으로 집단 자살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30962&ty=2>; 정병준, “박마리아: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친일과 권력욕의 화신”, 『청산하지 못한 역사: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 60인』 2권(서울: 청년사, 1994) 참고.

무부 장관, 문교부 장관, 공보처장, 공보처 차장,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내무부 치안국장, 국방부 정훈국장 등 정부 고위관료들과 공보처 공보국장, 통계국장, 방송국장 등이 선임되었다. 산하에 출판부, 연설부, 방송부, 대외선전부, 유세부, 정보부, 사무국을 두었다.²¹⁾ 즉 전시선전대책위원회는 선전대책중앙위원회를 전시 상황에 맞게 각 계각층 인사들을 망라한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확대한 것이다.

그 전신인 선전대책중앙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35호로 만들어진 기구로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의 기본정강의 천명, 정부시책의 선전, 민심의 계발 기타 선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보처에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선전 대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에 건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25인 이내로써 조직”하였고, 위원장을 국무총리, 부위원장을 공보처장과 내무부 차관이 맡았으며, 위원은 정부 내 고급 공무원과 선전대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임명하였다.²²⁾

또한 대통령령 35호는 각 시, 도에 시도(市道)선전대책위원회를 둘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1948년 12월 20일 총리령 제3호로 「시도선전대책위원회 직제」를 정하였다. 이 직제령은 시도선전대책위원회를 시 또는 도 내무국(內務局)에 설치하고, 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의 기본 정강의 천명, 정부시책의 선전, 민심의 계발, 기타 선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며, 선전대책에 관하여 시장 또는 도지사

21) 「민주신보」 1950. 9. 3.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8권(과천, 2004), p.581에서 재인용.

22) “대통령령 제35호, 선전대책중앙위원회 직제”, 『관보』 제17호, 1948. 11. 30.

건의하게 하였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시는 2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조직하도록 하였고, 시장 또는 도지사를 위원장, 시장사관(市參事官) 또는 도내무국장(道內務局長)을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시 또는 도 각 국장과 선전대책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하였다.²³⁾

선전대책중앙위원회는 1949년 10월 여순사건 1주년을 맞아 계몽선전대를 조직하여 전국 각지에 파견하였다. 선전대는 연극계와 영화계 인사들 216명을 강사로 동원하였고, 이들을 16개의 연극대와 영화대로 나누어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18일 간 전국 방방곡곡에 파견하였다. 이 선전대는 정부 차관급과 사회명사 및 언론인들이 인솔하였고, 그 규모나 취지로 보아 일찍이 보지 못한 대규모 계몽선전 조직으로서, 지방민을 위안하고 그 사상적 방향을 유도 계몽하는 활동을 하였다.²⁴⁾ 이 선전대는 지방으로 내려가 시, 도 선전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하였고,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부인회 지도부, 대한노총·전국문총 도지부, 해당 지역 신문사 및 신문지국, 농회·도 금융조합연합회 지부 등이 선전대 활동을 후원하였다. 또 1950년 5월에는 5·30선거를 순조롭게 치르기 위해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선거촉진 방공방첩 강화주간'을 설치하였는데, 역시 연극계 인사들을 동원하여 계몽선전 활동을 벌였으며, 문총 주체의 각종 행사를 조직하였다.²⁵⁾

23) “총리령 제3호, 市道선전대책위원회 직제”, 『관보』 제23호, 1948. 12. 20.

24) 『서울신문』 1949. 10. 23.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4권(과천, 2000), p.575에서 재인용.

25) 『동방신문』 1949. 10. 25, 『서울신문』 1949. 10. 26.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4권(과천, 2000), pp.571, 575-576에서 재인용; 『경향신문』 1950. 5. 17.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7권(과천, 2001), pp.398-40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선전대책중앙위원회와 시도선전대책위원회의 활동양식에 나타나듯이 이 기구는 문화계와 언론계를 동원하여 중앙 또는 지방 차원의 계몽선전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의 계몽선전활동에는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등 관계 동원조직이나 농회, 금융조합과 같은 관변단체들, 언론기관들을 광범하게 동원하였다. 선전대책중앙위원회와 시도선전대책위원회는 공무원과 '선전대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의 외관을 취했으나, 이승만 정권기의 다른 관제 단체들과 유사하게 민간에서 정부의 선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동원 기구의 역할을 했고, 어디까지나 정부 기구의 주도로 운영되었다. 선전대책중앙위원회와 시도선전대책위원회에 망라된 민간 인사들은 주로 문학, 연극, 영화 등 문화계 인사들과 언론계 인사들이었고, 이승만 정권의 선전활동에 문화계와 언론계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마디로 선전대책중앙위원회는 이승만 정권의 선전 정책을 조사 심의 기획하는 최고 기구이자 문화계와 언론·출판계를 동원하는 창구였고, 시도선전대책위원회는 중앙에서 하달된 선전방침을 지방의 사정에 맞게 실행하는 기구이자 지방 차원에서 문화계와 언론계를 동원하는 창구였다.

로버트 올리버

박마리아가 이승만 정부 공식선전기구의 핵심적 위치에서 젊은 작가들을 동원해서 전기를 편찬하고 그것을 보급하였다면, 올리버 박사는 어떤 연유로 이승만의 공식 영어 전기라고 할 만한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승만과 올리버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로버트 올리버는 1942년 워싱턴에서 처음 이승만을 만났고, 이후 구미 위원부에서 활동했다. 올리버는 전 시러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 수 사학 교수였고, 오랫동안 이승만과 구미위원부(Korean Commission)에 관여했으며, 이승만의 유능한 홍보 전문가이자 로비스트로 일해 왔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승만의 개인 홍보고문 역할을 계속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미국 법무부에 이승만의 홍보고문이자 김동성이 사장으로 있는 합동통신(Korea Pacific Press) 워싱턴 지국장 으로 등록하고 홍보고문 활동을 계속했다. 이승만의 사설고문단 (Kitchen Cabinet)을 조사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실의 한 보고서는 그 를 이승만의 고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하나로 손꼽았다. 이 보고서는 그를 이승만의 가장 가까운 홍보고문으로 지목했고, 그의 수사 학적 감각과 명료하고 편안한 문장은 이승만의 공식 성명 작성에도 영향 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김동성을 단장으로 하여 1949년 중반 부터 미국과 중남미를 순방한 친선사절단도 올리버가 고안, 기획하였다고 적었다. 김동성은 이 친선사절단 대표를 맡기 위해서 초대 공보처장직 에서 물러났다.²⁶⁾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로버트 올리버는 이승만의 핵심적인 홍보고 문이었고, 이승만은 대미 외교의 상당 부분을 올리버에게 의지했다. 올리 버는 1953년 여름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차관과 덜레스(John F. Dulles)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휴전협정을 논 의할 때도 한국에서 문안 작성 등을 담당하면서 이승만을 지원했고, 또

26) State Department,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OIR Report No. 4977*, "South Korea: President Rhee's American 'Kitchen Cabinet'", 1949. 6. 8; 출판,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1(서울: 다락방, 1995) pp.343-344.

1954년 봄에는 제네바 현지에서 제네바회담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을 지 원하였다. 특히 올리버는 미국에서 이승만의 대언론 활동과 홍보 활동을 전담하였다. 이승만은 그의 의중을 미국의 조야에 실어 나를 믿을 만한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올리버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 다른 한편 이 승만은 미국 조야의 여론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에게 전달 해 줄 미국 현지 대리인이 필요했는데, 올리버가 이승만을 위해서 그 역할 을 해주었다.

두 사람의 오랜 교류로부터 형성된 신뢰관계에 바탕해서 올리버는 1953년 4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기 또는 자서전 편찬을 제안하였다. 올리버는 4월 21일의 편지에서 "앞으로 2개월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자서전 을 집필한다면 이승만의 지도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머물 러야 하고, 이 대통령이 원한다면 여름에 한 달 이상 그의 곁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같은 편지에서 그는 "자신은 전기보다는 자서전 형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이번 여름이 아니라면 이후 다른 편리한 시기 라도 자서전 집필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

올리버는 이승만의 진면목을 서구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악의적 인 견해를 담은 출판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접근'에 입각한 홍보 가 최상의 방책이라고 믿었다. 올리버가 '개인적 접근'을 선호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접근을 통한 이승만 홍보를 구상한 것은 그것이 '이승만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이승만이 그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만 올바로

27) "올리버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 내외에게, 1953. 4. 21",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사자료 집 32: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5(1953)』(과천, 1996), p.174.

묘사될 수 있고, 독자는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²⁸⁾ 그는 그렇게 접근한 이승만 관련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두어 편 보냈을 뿐만 아니라 1953년 7월에 서울에 머물 때 이승만에게 또 한 번 전기 편찬을 제안하였다. 이때도 이승만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올리버는 그를 “내면에서 관찰하며 여분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²⁹⁾

공교롭게도 올리버의 서한철에는 1953년 하반기에 올리버와 이승만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승만이 전기 편찬에 동의한 정확한 시점과 원고 집필과정에서 양자가 주고받은 의견 교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1954년 1월에 올리버는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외교 행낭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내외에게 부쳤다. 이로 보아 올리버는 1953년 9월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가 1954년 1월 경 원고를 탈고하였고, 그간 완성한 각 장 원고들을 그때그때 이승만 대통령 내외에게 보내서 논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올리버는 1953년 4월 21일 이승만에게 보낸 첫 번째 자서전 편찬 제안 편지에서 이후 두어 달 전기 편찬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

처음에 전기 편찬에 별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승만이 마음을 바꿔 전기 편찬에 동의한 시점, 이유, 동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올리버가 1954년 1월 5일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케네스 레이더 사(Kenneth Later Agency)라는 한 미국 회사의 이승만 자서전 집필 제안을

28) “올리버 박사가 올리버 여사에게, 1953. 7. 20”, 국사편찬위원회(1996), p.497.

29) “올리버 박사가 올리버 여사에게, 1953. 7. 18; 1953. 7. 20; 1953. 7. 30”, 국사편찬위원회(1996), pp.493, 497, 569.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서 올리버가 미국으로 돌아간 1953년 9월 이후 시점에서 올리버가 자서전 대신 전기를 집필하기로 양자가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보낸 1954년 1월 6일자 편지에서 수정 원고가 초고보다 낮고, 전체적으로 훌륭하다고 논평한 것으로 보아 이승만은 초고는 물론 수정 원고까지 검토하였으며, 원고에 대체로 만족하였다.³⁰⁾

전기 출간을 둘러싸고 올리버와 이승만, 프란체스카가 교환한 편지의 내용을 훑어보면 올리버는 모든 원고 내용에 대해서 이승만의 동의를 얻은 뒤 출간하겠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하였고,³¹⁾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꽤나 철저하게 내용을 교열하였다. 이승만은 문체나 표현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서술 내용의 전후 맥락이나 연결 관계는 세심하게 배려하여 검토하였고,³²⁾ 그것이 이 책에 대해서 이승만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었다.

애초 올리버의 편찬 목적이 이승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적 여론에 대응하고, 서구 사회에 이승만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승만 대통령 내외도 그 점을 깊이 유의하였음은 책의 출판, 배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프란체스카는 책을 위엄 있게 보이도록 겉표지를 황금색으로 제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한국문제의 전후 처리를 위해 개최된 1954년 제네바회담에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참석자들과 언론인들에게 기증할 것을 지시하였다.³³⁾ 또 이 책을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매점

30) “올리버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 내외에게, 1954. 1. 5”, “이승만이 올리버 박사에게, 1954. 1. 6”,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사자료집 33: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6(1954)』(과천, 1997), pp.2, 4.

31) “올리버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 내외에게, 1954. 1. 5; 1954. 1. 14”, 국사편찬위원회 편(1997), p.2.

32) 국사편찬위원회 편(1997), p.4.

33) “프란체스카가 올리버 박사에게, 1954. 2. 2; 1954. 4. 14”. 국사편찬위원회 편(1997), pp.38,

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책이 출간되자마자 일본어, 중국어 번역 출판을 시도하였다.³⁴⁾ 이승만은 이 책을 직접 집필하지 않았지만 원고 집필과정에서부터 내용을 ‘감독’하였고, 원고 교열과 내용 수정을 통해서 원고의 서술 방향과 내용을 ‘통제’ 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었다.

(3) 소결

1950년대의 억압적인 정치상황과 사상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독재자 이승만의 전기 편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승만은 진지한 학문적 탐구나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 전 국민이 우려러 받아들여야 할 존재였고, 그런 상황에서 그에 관한 전기란 일종의 찬미가, 호교론, 정훈 교재에 다름 아니었다. 전기는 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통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 편찬을 위해 학자와 문필가는 동원되고 조직되었다. 그런 면에서 그 시기에 나온 전기의 발간 동기와 기제에 대한 분석은 전기를 통해서 관찰되는 이승만 정권의 지배양식의 일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부 수립 이후 나온 이승만 전기의 편찬 주체는 대부분 이승만의 지지자, 측근, 이데올로그,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홍보기관이었다. 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승만 홍보와 선전을 주도한 곳은 역시 공보처, 공보실이었으나 이 기관들이 생산한 전기류는 홍보용 소책자의 형태를 벗어

날 수 없었고, 또 수록 내용 역시 단편적이고 조악한 내용들이 체계 없이 편집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홍보와 선전의 필요를 위해서도 내실 있는 전기의 편찬이 필요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주목할 것은 한철영과 로버트 올리버의 저술이다. 이 두 책의 편찬과 국내 보급에는 모두 박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글은 박마리아의 개인적 역할과 함께 그녀가 속했던 선전대책중앙위원회의 존재를 들어 이승만의 표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기구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기구는 이승만 정부가 홍보와 선전의 목적을 위해서 언론계와 문화계를 동원할 때 그 창구와 도구 역할을 하였으며, 이승만 정부의 선전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최고기구였다. 공보처장, 내무부 치안국장, 육군 정훈국장 등 정부, 군부의 홍보·선전정책 고위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박마리아, 윤보선, 김광섭, 이선근, 김장홍 등 이 시기 전기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이 위원회 소속이었다.

최초의 이승만 영어전기인 올리버의 전기는 당시 시점에서는 가장 자료적 근거가 풍부한 저술이지만 이 책 역시 이승만과 긴밀한 협조 아래 홍보와 선전을 위해 편찬되었다. 이승만은 서정주의 전기 편찬 과정에서 보았듯이 집권 이전부터 전기 편찬에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이승만은 이 시기에 나온 가장 내실 있고 권위 있는 전기들의 편찬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 대해 경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한 전기를 압수할 정도로 전기에 나타난 그의 이미지를 세심하게 관리하려고 했다. 그 이후의 전기 편찬자들은 이승만의 그러한 행동을 일종의 편찬 지침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기 전기 편찬의 주체는 어떤 한 자연인이 아니라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고, 지배 권력의

26에서 재인용.

34) “올리버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 내외에게”, 1954. 5. 27; 1954. 6. 3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7), p.191. 이 책의 일본어 번역본은 1958년에 일본 고베에서 출간되었다. 로버트 T. 올리버 (著)·抽久保虎一 (譯), 『米大學教授がみた人間李承晩』(神戸: 日本觀光株式會社出版部, 1958).

작동을 위해서 선전과 사상 통제를 담당한 이승만 정권의 홍보·선전기제가 자체였는지도 모르겠다.

4. 이미지의 변주(變奏)

앞에서 전기가 그러낼 이미지를 세심하게 관리하려는 이승만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승만은 최소한 무엇이 전기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올리버의 전기 편찬 과정은 그러한 이승만의 행동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 전기 편찬의 주체들 역시 편찬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였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권력자의 이미지에 덧칠을 하였다. 권력자의 행위가 스스로 권력의 표상을 관리함으로써 지배와 통제를 관철시켜 나간 것이라고 한다면, 전기 편찬 주체의 덧칠은 권력자의 지지기반과 지배 구조 내 세력 관계의 변화, 지배 이데올로기·노선의 변용과 재해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전기에서 나타난 이미지의 변주(變奏)를 추적하여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음미하고자 한다.

이 시기 편찬한 전기들은 대개 이승만에 대해서 공통의 이미지를 투사한다. 성장기, 개화운동기는 선각자, 동서양 사상을 아우른 사상가이자 계몽운동 지도자, 미국 유학기와 독립운동기는 불굴의 독립운동 지도자, 해방 직후는 국부(國父), 한국전쟁 이후는 세계적인 반공 지도자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민족의 태양', '민족의 거성', '성웅(聖雄)', '자유세

계의 지도자', '건국의 워싱턴', '남북통일의 링컨', 심지어 '하느님이 내려 보내신 그리스도'까지 온갖 수사와 비유가 동원되지만 이 시기 전기들이 이승만의 활동을 시기별로 평가할 때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평가 기준과 이미지는 대체로 위에서 제시한 것들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과 이미지는 해당 시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활동 내용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 서술은 한편으로 이승만 노선과 활동에 대한 호교론(護敎論)의 태도를 취한다. 3·1운동에 대한 서술을 예로 들면 대부분 전기는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이승만의 주도성, 이승만은 시종일관 비폭력 노선, 무저항 운동을 주장하고 외교노선을 고집했다는 노선적 정당성, 운동의 결과 그가 초대 임정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 서술의 초점을 둔다. 그리고 그러한 서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윌슨과 이승만의 친밀한 관계, 미국에서 이승만의 활동 등이 언급된다. 올리버와 한철영은 3·1운동 서술에서 이러한 이야기 구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올리버는 한 때 이승만의 동지였고 나중에는 정적이 된 박용만의 무력항쟁 노선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이승만 외교노선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던 반면, 한철영은 박용만을 의형제로 소개한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여기에서는 이승만 전기들이 가진 이러한 이야기 구성의 전체적인 윤곽과 세부적인 서술 내용을 일일이 언급할 여유가 없는 만큼 각 전기들에 공통된 이승만 이미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 안에서 어떤 변주가 일어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승만이 올리버 전기에서 수정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승만은 올리버 전기의 초판이 나오자 바로 수정할 사항을 3매로 작성하여 올리

버에게 보냈고, 올리버는 이승만의 요청을 이듬해 발행한 재판에 반영하였다. 이승만이 수정을 요청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관계의 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거나 단순한 교정사항이 많았지만 몇몇 부분은 이승만이 관리하려는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초판에는 요절한 형에 대한 서술이 있지만 이승만은 자신 이외의 다른 아들의 존재를 서술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은 요절한 형의 존재를 빼고 이승만이 6대 독자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초판에는 그의 누이들이 모두 시집가기 전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승만은 그의 두 누이가 모두 결혼했으며 아이까지 두었다고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자신의 전기에서 불행한 가정사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올리버는 재판본에서 두 누이에 대한 서술을 아예 삭제하였다.³⁵⁾

다음은 이승만이 어린 시절 눈병이 나서 실명할 뻔 했다가 양의 치료로 시력을 회복한 일화이다. 올리버는 초판본에서 이 양의를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으로 소개하였으나 이승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호레이스 알렌의 이름이 눈병과 연관되어 이곳에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빼야 한다”는 수정 요청을 보냈다. 올리버는 재판본에서 호레이스 알렌을 ‘외국인 의사(foreign doctor)’로 바꾸어 애매하게 처리했지만, 이 외국인 의사가 양의(洋醫), 그것도 선교사 의사를 암시하는 문맥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³⁶⁾ 올리버는 이 일화를 이승만이 처음으로 서양문명, 더 나아가 기독교와 만난 사례로 이용하였다. 1956년에 나온 박마리아의 번역본은 올리버의 초판을 그대로 따랐고, 1957년에 나온 『국부 리승만

35) “이승만이 올리버 박사에게, 1954. 5. 27”, 국사편찬위원회(1997), p.188; Robert T. Oliver(1955), p.2.

36) 국사편찬위원회(1997), p.188; Robert T. Oliver(1955), pp.11-12.

박사 그림 전기』 역시 호레이스 알렌이 눈병을 고친 것으로 서술하였다. 올리버의 초판이 수정 없이 다른 전기들에 의해 수용된 것이다.

박마리아의 번역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올리버 전기 초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고치도록 일러준 부분을 손질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3·1운동 직전 사망한 고종의 자살설을 소개하면서 자살의 배경으로 든 아들 영친왕과 나시모토 마사코(梨本方子)의 결혼 관련 내용이다. 올리버는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고, 영친왕이 난초재배에 빠져서 일본 패망 후 생활이 곤궁할 때에도 도쿄의 온실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주로 붙였다. 올리버의 각주는 영친왕이 해방 이후 한반도 사태 전개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한반도에는 왕당파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이제 조선왕조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서술로 끝을 맺었다. 이승만은 이 각주를 원고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각주는 재판에서도 제외되지 않았다.³⁷⁾ 이승만이 이러한 내용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그의 반일정서 때문인지 아니면 조선왕조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왕가의 혈통을 계승했음을 은근히 과시했던 왕가 계승 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3쪽 이상을 차지하는 각주 부분을 제외하면 판을 다시 짜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박마리아의 번역본은 이 부분을 번역에서 전부 제외하였다.³⁸⁾

이승만은 올리버 전기 가운데 1946년 12월 그의 미국행을 서술한 부분에서 그가 미국 상선 머린 점퍼호를 타고 인천항을 출발한 것으로 묘사한 부분을 “맥아더 장군이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김포 공항을 출발해

37) 국사편찬위원회(1997), p.189; Robert T. Oliver(1955), p.34.

38) 로버트 T. 올리버 (지)·박마리아 (역)(1956), pp.236-237.

서 도쿄를 거쳐 미국으로 갔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 올리버는 이승만의 요청대로 재판에서 수정했다.³⁹⁾ 그 시점에서 이승만의 방미는 이승만 진영에서는 그의 외교 능력을 보여주는 쾌거로 자주 인용된다. 즉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는 ‘친공주의자’ 하지(John R. Hodge) 주한미군사령관의 방해를 무릅쓰고 도미하여 당시 이승만이 주장한 총선거를 통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 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출국 과정에서 하지와의 갈등을 과장하였고, 미군정이 비행편을 제공하지 않아서 인천항에서 선편으로 도쿄로 가서, 도쿄에서 맥아더가 제공한 비행편으로 미국으로 향한다고 선전하였다. 실제로 이승만은 1946년 12월 1일 서울에서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요란한 환송식을 치른 후 인천으로 향하였지만 그날로 은밀히 서울로 돌아와 12월 4일 미군정이 제공한 비행기로 도쿄로 향하였다.⁴⁰⁾

이 부분은 올리버와 이승만이 전기 편찬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선전의 목적을 이루는지 잘 보여준다. 먼저 올리버는 이승만의 연출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1946년 방미 당시 한국인들에게 선전했던 대로 이승만이 선편으로 떠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이승만이 하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국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였다. 그것에 대한 이승만의 수정 요청은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계의 완벽한 복원은 아니다.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미군정이 제공하였지만 이승만은 그것을 맥아더가 제공한 것으로 살짝 바꾸

39) 국사편찬위원회(1997), p.190; Robert T. Oliver(1955), p.230.

40) 참고, “미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와 미국의 대응”, 『역사비평』 30, 가을호(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309, 313-316, 327. 이 글은 이 시기 이승만 ‘외교신화’의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연출인지 치밀하게 검토하였다.

었고, 그럼으로써 맥아더와 그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올리버는 간단한 교정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판을 새로 짜야 할 정도로 수정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초판 서술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승만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단한 교정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올리버가 이승만의 요청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올리버는 이승만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시절을 서술하면서 이승만을 ‘젊어서부터 타고난 정치인’으로 묘사했다. 이승만은 이 문장을 ‘타고난 정치가가 아니었고, 농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고칠 것을 요청했지만 올리버는 2판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⁴¹⁾ 이 부분은 이승만이 고통 받는 개인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개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았다는 맥락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올리버는 이승만의 수정 요청이 그런 문맥을 해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또 그 부분은 이승만의 성격에 대한 올리버의 고유한 평가이기도 했다.

올리버의 전기는 집필 목적 자체가 이승만의 개인적 면모를 서구 사회의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승만에 대한 악의적인 견해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물론 올리버는 이승만을 ‘내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는 이승만과 교환한 서신들은 물론 이승만의 개인 문서와 이승만의 측근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그때까지 나온 전기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지금까지 출간된 전기 가운데서도 충실한 편에 속하는 전기를 썼다. 하지만 이 전기는 충실하긴 하지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올리버나 이승만은 때로는 사실관계를 수정

41) 국사편찬위원회(1997), p.188; Robert T. Oliver(1955), p.27.

하고, 때로는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교묘하게 윤색함으로써 이승만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에게는 홍보·선전 효과가 중요했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는 이승만의 저술들, 예컨대 「독립정신」과 「일본내막기」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 이런 저술들이 서술 상의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 전기 편찬의 배경이나 편찬의 주제, 기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 시기의 전기에서 자유로운 서술, 객관적인 평가를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전기마다 이미지의 일정한 변주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승만이 설명했다가 일본인 의사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한 일화는 1950년대에 나온 이승만 전기에는 모두 등장한다. 하지만 그 일화를 처리하는 방식은 필자에 따라 조금씩 달랐고, 필자들은 이 일화를 윤색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올리버 전기 이전에 나온 서정주와 한철영의 전기는 이승만의 눈병을 고친 것이 진고개에 살던 일본인 의사였고, 이승만이 일인 의사가 안약을 눈에 넣은 지 3일 뒤 생일날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이것을 이승만 어머니의 입을 빌려서 용꿈 태몽을 꾸고 난 아이라 생일날 눈을 뜨게 되었다고 그 신통력을 강조하였다. 1956년에 나온 박성하의 전기는 이 일화를 소개한 뒤 이것을 신문명의 고마운 혜택이자 “세계 정세에 어둡고 장님인 우리 겨레 중에서 장차 가장 먼저 떠야 할 리박사의 영롱한 눈을 보호한 것은 역시 하느님의 뜻”이라는 해석을 첨가하였다.⁴²⁾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강조는 박성하의 전기에서 이승만의 시력 회복

일화에 한정되지 않았다. 박성하는 그 이전 전기들이 이승만의 탄생을 어머니의 태몽에 나타난 용의 승천으로 미화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예수의 탄생과 비견할 만한 사건으로 묘사하였다. 박성하는 이외에도 전기 여기저기에서 이승만의 활동을 기독교 설화와 겹쳐서 서술하거나 예수의 활동에다 비유하였다. 이러한 서술 경향은 우남전기편찬회가 편찬한 『우남노선』에 이르면 한층 강화된다. 『우남노선』은 이승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리박사는 건국의 워싱턴이요 남북통일의 링컨이며 약소민족의 독립주로 하느님이 내려보 내신 한반도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⁴³⁾ 후지이 다케시는 이승만의 활동을 예수의 활동에 비유하며 ‘하느님의 뜻’을 강조하는 이러한 전기의 서술경향 변화를 이승만 신격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⁴⁴⁾

그는 또 이승만 집권 초기에 집필한 양우정의 책들이 일민주의를 강조한 데 비해 한국전쟁 이후 간행한 전기들에서는 일민주의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거나 그 내용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를 희석시키고 동서양의 조화를 강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후지이 다케시는 이승만 전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권력구조 내의 세력 교체, 즉 자유당에서 이범석이 이끄는 ‘죽청계’가 제거되고, 이기붕이 자유당의 제2인자로 부상하는 사정이 전기 서술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⁴⁵⁾ 그리고 그 시점에 이르면 이승만 전기는 이승만 우상화 작업의 실현 수단, 국민정신교육의 교재, 지배 이데올로기 정립과 확산을 위한 매개체라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재의 영속화, 합리화를 위한 민의 동원의 도구라는 용도를 하나

42) 박성하(1956), p.23.

43) 우남전기편찬회, 『우남노선』(서울: 명세당, 1958), p.187.

44) 후지이 다케시(2007), pp.18-24.

45) 후지이 다케시(2007), pp.12-15, 20-21.

더 보탠다. 박성하의 전기는 결론에서 이승만의 재출마와 삼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으며,⁴⁶⁾ 『우남노선』은 이승만을 ‘한반도의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바로 다음 쪽에서 이승만을 ‘제3대, 제4대 내지 제5대 대통령으로 계속하여 추대’할 것을 다짐하고, 이어서 이승만의 입을 빌려서 이기붕이 가장 적합한 부통령 후보이자 이승만의 진정한 정치적 계승자임을 강조하였다.⁴⁷⁾ 이 대목에 이르면 『우남노선』의 편찬 의도가 확연해진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 이승만 전기는 이기붕을 위시한 자유당 실세들에 의해서 홍보·선전의 매개이자 정치적 동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올리버와 이승만은 책의 출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편지들을 남김으로써 올리버가 어떤 동기에서 전기를 집필했고, 자신의 책에서 이승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투사하고 반영했는지, 또 이승만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했는지 그 편린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나온 이승만 전기들의 편찬 주체와 동기를 감안한다면 그 시기에 나온 전기들을 이승만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텍스트 비판이 필요하다. 또 전기가 간직한 정치적 메시지와 숨은 의도를 읽어내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독자들은 그 전기들에서 ‘진실’과 ‘연출’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승만의 ‘실체’와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미 간행된 모든 이승만 전기가 그러한 텍스트 비판의 대상이고, 전기에 대한 텍스트 비판은 ‘신화’를 ‘역사’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46) 박성하(1956), pp.242-248.

47) 우남전기편찬회(1958), pp.188-191.

Abstract

Public Relations, Propaganda, and Image Making of Dictator: Biographies of Syngman Rhee in the 1950s¹

Chung, Young-Woo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biography usually reveals the contemporary discourse structure about the related figures. Through the analysis of biographies,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not only Syngman Rhee's thoughts, life, and their historical context, but also people's perceptions and images of him at the time of the biography production, the way the discourse was made and consumed, and its political meanings. This article dealt with various biographies on Syngman Rhee, their authors and motives, and the features of the discourses and ideas. Biographies of Syngman Rhee in the 1950s, as the oppressed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is period shows, were not freely authored by individuals, but by Public Information Office or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s. Even private biographies were patronized by the persons in charge of public relation under the Syngman Rhee. This article analyzed various biographies written by Suh Jung-joo, Hahn Chul-young, Park Sung-ha, Robert T. Oliver, and Committee on the Publication of U-nam(Syngman Rhee's penname) Biography. Also, this writing dealt with who Yi Pum-suk, Park Maria, Yi Ki-boong etc were, figures who initiated biography publications.

The officials dealing with public relations and propaganda under Syngman Rhee, led the biography publications in the 1950s. The publication process of Robert T. Oliver's biography is highly illustrative of how Syngman Rhee and Robert T. Oliver worked together to project and manage Syngman Rhee's images upon the biography. Through other writings,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change of ruling ideologies while we understand the power shift like the fall of "Jok-chung" faction of Yi Pum-suk and the rise of Yi Ki-boong.

Keywords: Syngman Rhee, Biographies of Syngman Rhee, Public Information Office, Committee on Propaganda Policy, Suh Jung-joo, Robert T. Oliver, Yi Pum-suk, Park Maria, Yi Ki-boong